

# 보험업종

## 문케어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, 긍정적

### ■ 공 · 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결과 발표

-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(문케어)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식을 발표하였음.
- 공보험(건강보험)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확정되어 시행된 정책을 반영할 경우 6.15%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(반사이익)가 기대되며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13.1% ~ 25.1% (풍선효과 미반영)가 될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하였음
- 다만 높은 손해율로 인하여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는 2017년 4월 이전 판매한 실손담보에 대해서는 인상요인 12%~18%와 반사이익(인하요인) 6.15%를 모두 반영하여 2019년 1월에 6~12%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예정임.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을 선택가입으로 설정하고 자기부담금을 30%로 설정한 2017년 4월 이후 판매한 상품의 경우 손해율이 현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8.6%의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반영될 예정임

### ■ 합리적 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, 손해보험업종의 불확실성 해소

- 우리는 감독당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험업종에 내재되어 있는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었다고 판단함
- 지난해 문케어 발표 당시 투자자들의 우려는 1) 공적보험의 보장 강화로 사적보험의 수료가 급감할 수 있다는 점과 2) 높은 손해율이라는 현실적인 측면보다는 반사이익이라는 정책적 측면이 강조되며 무리한 보험료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었음
- 하지만 6.51%라는 보험료 인하요인을 결정하는데 있어 확정되어 시행된 정책의 효과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과 손해율이 높은 과거 계약의 경우 보험료 인상요인을 보험료 책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합리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됨
- 2018년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보장성 인담보 신계약은 실손이외의 담보의 구성 비중을 확대하며 높은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문케어 발표 당시의 투자자들의 우려는 해소되었다고 판단함
- 2019년 1월 보험료 인상은 현재 100%를 상회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 손해보험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함

투자의견

## Overweight

Analyst 강승건

(2122-9181)

neo.cygun@hi-ib.com

## 문케어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용역 결과 발표 및 보험료 조정 방안 발표

주요 내용	세부 내용
<p><b>건보 보장성 강화</b></p>	<p>▶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장성 강화 정책 중 <u>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의한 인하효과</u>는 먼저 '19년 실손 보험료 조정시에 반영</li> </ul> <p>▶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, 동일한 방식으로 실손 보험료 조정 예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2년까지 30.6조원을 투입하여 미용/성형 등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</li> </ul> <p>▶ 인하요인 반영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준 실손 상품(2017년 4월 이전 판매 상품)은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<u>新실손상품</u>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</p>
<p><b>손해율(위험률)을 반영하여 실손보험료 산정</b></p>	<p>▶ <u>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을 경우 보험료 인상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8년말 손해율이 110%(보험금 110, 보험료 100)일 경우, '19년에 조정되는 보험료는 10% 인상 필요 → '19년 보험료는 110으로 산출</li> <li>- '19년 실제 보험금 지출이 반사이익을 고려한 예측치(104)와 동일하면, '19년 말 손해율은 100%로, 이 경우 '20년 보험료는 변동 없음</li> </ul>
<p><b>문케어 효과를 반영한 19년 1월 보험료 조정 예상치</b></p>	<p>▶ <b>2019년 1월, 보험료 인상/인하 예상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9년 9월 이전 출시 실손보험 실제적용 조정분: +8%~+12%(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인상요인 14~18% - 문케어 인하요인 6.15%)</li> <li>- 2009년 10월 ~ 2017년 3월 출시 실손보험 실제적용 조정분: +6%~+12%(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인상요인 12~18% - 문케어 인하요인 6.15%)</li> <li>- 2017년 4월 이후 출시 실손보험 실제적용 조정분: -6.15%(현재 손해율이 매우 낮기 때문임)</li> </ul>

자료: 금융위원회, 하이투자증권

## Compliance notice

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,

- ▶ 회사는 해당 종목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▶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[\(작성자 :강승건\)](#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

1. 종목추천 투자등급 (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)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(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)

- Buy(매 수): 추천일 증가대비 +15%이상
- Hold(보유): 추천일 증가대비 -15% ~ 15% 내외 등락
- Sell(매도): 추천일 증가대비 -15%이상

2. 산업추천 투자등급 (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)

- Overweight(비중확대), - Neutral (중립), - Underweight (비중축소)

##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8-06-30 기준

구분	매수	중립(보유)	매도
투자의견 비율(%)	93.9 %	6.1 %	-